

나주시, 지역 인재 유출 막기 총력전 펼친다

초·중생 외국어체험·해외연수 교육지원조례 포함 추진
일회성·선심성 논란 막고 지속적 추진 근거 마련키로
고교 공동지원제·명문 사립고 유치는 사실상 물거품

나주시가 초·중학생들의 외국어 체험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조례'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조례에 관련 사업을 명시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 해외연수 체험 기대=취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가 운영중인 해외 어학연수와 지역 내 영어, 중국어 체험캠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조례'를

개정기로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무리했고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어학연수와 외국어 체험캠프의 경우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일회성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1900명의 초·중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와 지역 내 영어, 중국어 체험캠프를 지원해왔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400명의 학생들이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 자매 도시인 미국 메릴랜드주와 LA 등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나주시가 동산대를 통해 진행하는 외국어 캠프도 1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015년부터 중국어 체험 캠프를 새롭게 마련, 운영중이다.

◇인재 유출 막을 수 있을까=해외 어학연수와 어학캠프는 지역 초·중학생들의 외국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를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명문 사립고 유치'까지 검토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광주와 고교 공동지원제(공동학군제)의 경우 지역 일반고 경쟁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혁신도시 내 고교 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추진됐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부모들의 광주 이주 증가 우려 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동학군제가 성사되면 '공동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점을 들어 전남교육청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나주시가 지난해 2월부터 부시장을 팀장으로 운영중인 '명문사립고 유치 TF'도 부영을 비롯, 몇 군데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섰다. 무산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18일 개관, 본격 운영에 들어간 나빌레라 문화센터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잠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나빌레라 문화센터 개관식

하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뿜던 나주잠사(蠶絲)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나주시는 18일 강인규 나주시장, 손금주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남동 '나빌레라 문화센터(이하 나나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나나센터는 일제강점기 강제수탈 등 지역민의 아픔이 서린 폐건물을 리모델링,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나나센터에 57억원을 투입, 지난 7월 준공했다.

나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대지

5117㎡) 규모로, 문화예술 분야 집회, 강연, 전시, 공연 등 시민을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명은 시인 조지훈의 '승무'에서 따왔다.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 완전한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형상화한 말로, 폐건물인 나주잠사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빌레라라는 명칭처럼 나주가 문화 도시로 힘차게 날아올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나나센터 개관에 맞춰 ▲한·중 대표작가 교류전 ▲한국전 연암색문화상품대전 ▲김진송 작가의 설치미술작품전 ▲신성한 작가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전시 행사를 마련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갖고 본격 운영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2층(연면적 411㎡) 규모로, 직원들의 자녀 양육 환경 조성 및 출퇴근 유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착공, 지난 5월 준공됐다. (나주시 제공)

경로당 활성화 내년 예산 20억원 편성 지방선거 앞두고 의회 반영 여부 관심

나주시가 노년층을 위한 2018년도 경로당 활성화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노인들의 요청을 반영, '2018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20억6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확보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6억5000만원(100곳) ▲경로당 누수 1억2000만원(20개소) ▲화장실 보수 1억(20곳) ▲화장실 미끄럼 방지 1억(500곳) ▲LP가스 고무관 교체 3000만원(100곳) 등이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올 해(9억7500만원)보다 2500만원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해(10억2000만원)보다는 감소했다.

경로당을 이용한 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기능 보강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실무부서 입장이다.

지역노인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1억3500만원을 편성, 최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노안면 도산리와 금안 4리, 봉황면 장치마을 내 마을회관이 신축된다. 담당부서는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1km이상 떨어져 있어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로당 170곳에 100만원씩 운동기구 및 전자제품을 지원하는 예산 1억7000만원도 편성, 제출된 상태다.

냉장고의 경우 대당 구입비로 80만원을

책정했고 TV 65만원, 에어컨 130만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150곳의 경로당에 해충포획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도 책정, 예산 부서로 넘겨진 상태다.

아울러 610개 경로당의 내년도 공동급식비로 7억3200만원을 편성,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연계, 노년층을 겨냥한 사업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담당부서가 요청한 경로당 관련 예산(20억6700만원) 중 부서별 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지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소멸위험지구서 주의지역 개선 이유는?

혁신도시 효과로 유입 인구 증가

나주시의 소멸위험지수가 3년 전에 견줘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유입 인구 증가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올 8월 전남 22개 자치단체의 소멸위험지수를 2014년 말 수치와 비교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나주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53으로 3년 전인 2014년 말 0.40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넘는 것으로, 가입여성의 90%가 분포하는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주목할 표다.

지수가 1에 못 미치면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0.5 이상~1.0 미만이면 '소멸 주의'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나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인구(10만 9159명) 중 20~39세 여성인구(1만 2734명) 비율이 11.7%로 집계되면서 3년 전 '소멸 위험지역'을 벗어나 '소멸 주의 지역'으로 개선됐다.

혁신도시 활성화로 인한 인구 증가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혁신도시는 2015년 1만2452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2만1405명으로 늘었고 올 해도 9월 말 기준 2만7553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주 지역 인구는 8만5730명(2015년)에서 8만180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목포시는 3년 전 '정상'(1.01) 단계였지만 올 해는 0.86으로 낮아지면서 '소멸주의' 지역으로 진입했다. 전남도는 조선산업 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